

충주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 II. 선행 연구
- III. 판독의 기초자료 확보
 - 1) 비면의 디지털 사진촬영
 - 2) 탁본 및 디지털 사진촬영
 - 3) 3D 스캐닝
 - 4) RTI 촬영
- IV. 제액과 간지의 판독 및 고찰
- V. 맺음말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은 고구려 시대의 비석, 목서명, 금속기명, 토기명, 와전명 등 문자자료의 종합적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료가 부족한 고구려사 연구에서 남북한 및 중국 지역에서 보고된 금석문 자료를 파악하여 자료집으로 제작, 고구려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하고 이를 학계에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 하에 필자는 2019년도 기획연구 과제로 ‘충주고구려비의 금석학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비가 발견된 지 40주년을 맞아 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가 공동으로 충주고구려비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기획하게 되었고 사전에 두 차례에 걸친 공동 판독회를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진은 기존에 접하지 못한 3D 스캐닝 데이터와 RTI 촬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비면을 고해상으로 촬영한 디지털 사진과 문화재청의 협조로 탁본 제작 과정을 참관하였고 양질의 탁본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휴관일에 현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10회 가깝게 비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판독 작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파악된, 특히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제액 부분과 간지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선행 연구

충주고구려비는 1979년 충주 지역의 문화재 애호가들의 모임인 예성동호회에 의해 처음 문자비로 확인되었다. 이후 동호회 회원인 장준식(당시 대학원생)의 제보를 받은 정영호 교수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단은 단국대학교 사학과와 국문과의 차문섭, 박천규, 이호영, 김상현, 남풍연, 장명환, 이화숙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세종대 정장호, 건국대 김광수, 동국대 장충식 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비가 발견된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탁본을 제작하였으며 현장에서 판독 작업을 진행하였다. 비문에서 ‘高麗大王’이라는 글자를 확인함으로써 이 비석이 고구려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조사 경위와 이후 학계의 연구 성과는 그 해 檀國大學校 史學會에서 발행한 『史學志』 제13집에 중원고구려비 특집호로 실렸다.¹⁾ 게재된 논문은 중원고구려비의 발견조사와 연구 전망(정영호),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이병도), 중원고구려비의 몇가지 문제(이기백), 중원고구려비의 내용과 년대에 대한 검토(변태섭), 중원고구려비소고(임창순),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고찰(신형식), 중원고구려비의 몇가지 문제점(김정배), 중원고구려비의 제액의 신독(이호영) 등 모두 8편이다. 발표 논문은 주로 비문의 판독과 해석, 이를 근거로 한 비의 건립 년대 및 성격, 특히 당시 신라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비면은 발견 당시 이미 훼손이 심하여 3면비인지 4면비인지 논란이 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은 대개 4면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다만 비문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면이 전면인지에 대해서는 그 뒷면의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었다.

또한 비문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고려대왕’, ‘신라매금’ ‘여형여제’ 등이 판독됨에 따라 신라가 고구려에 예속되었던 5세기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특히 ‘十二月廿三日甲寅’을 판독함으로써 해당하는 년도는 449년(장수왕 37년), 480년(장수왕 68년), 506년(문자왕 15년) 등으로 좁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비는 당시 학계의 몇몇 대가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다소 자의적인 판독과 해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전면 상단의 공간에 분명한 필획이 존재한다는 점은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었지만 비면의 상태가 훼손이 많아 판독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병도 선생은 판독에 골몰하던 중 꿈속에서 ‘建興’이란 글자를 보았다고 하고 탁본상의 자적을 ‘건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비가 발견된 이후 20년이 지난 1999년에 우리 학계에서는 고구려연구회가 주도하여 비문의 정확한 판독을 위한 공동 판독회를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다.²⁾ 판독회에서는 발견 초기에 채탁한 탁본과 당시 현지에서 뜬 양질의 탁본을 서로 비교하고 조명을 이용하여 비면의 사진 촬영하고 개별 글자의 도판화 및 컴퓨터로 처리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모든 글자를 검토하였다.

판독회는 비를 발견할 당시 참여하였던 학계 원로 대부분을 초청하였으며, 한창 연구력이 왕성한 30~40대 신진학자들도 대거 참여시킴으로서 학자들의 고민을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학제간 연구를 위해 역사학, 고고학, 문화사학, 국문학, 한문학, 서예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였다. 비석이 서있는 근처 숙박지에서 4박5일간 합숙하면서 진행된 판독회 결과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史學志』13.

2) 고구려연구회편, 2000,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129~267쪽 참조.

비가 발견될 당시부터 모두 몇 면에 새겨져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면비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우측면에서 ‘前部大兄’이라는 고구려 관직명을 판독하였고 역시 뒷면에도 ‘巡’자형을 읽어냄으로서 뒷면에도 글자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면 상단에 ‘年’자를 확인함으로써 이 비에 題額이 있다는 데 석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새로 읽어낸 총 19자 중에서 석문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확정된 글자는 11자이다. 새로 읽어 추정된 글자는 8자이고 지금까지 여러 견해로 논의되었던 글자를 석문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글자가 6자이다. 전체 글자 200여자 가운데 1/10이 넘는 글자를 새로 읽어내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6자를 확정함으로써 충주고구려비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충주고구려비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비를 처음 학계에 소개한 정영호 교수가 중원고구려비의 발견과정과 의의라는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하였고, 이어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이도학),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에 대하여(木村 誠) 등 모두 12편의 새로운 논고가 발표되었다. 비의 건립 목적, 비문에 나타난 이두적 성격을 연구한 논문이나 고구려 국명의 변천이나 신라 또는 신라비를 비교 연구한 것은 새로운 성과라 할 수 있다.

금석문의 연구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판독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발견 당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석문과 이후 고구려연구회가 주최한 판독회를 통해 작성된 석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비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탁본과 사진 등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비교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의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 먼저 기초 자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왕의 두 차례의 걸친 논의는 결과를 중심으로 개별 논문으로 남았을 뿐, 실제 판독 등에 활용되었던 탁본이나 사진 자료들이 충분히 자료화되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탁본 도판을 일부 논문집에 수록하기는 하였지만 편집과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하고 지나치게 축소되어 자료의 실상을 정확히 전하기 어렵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해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음에도 비의 시기별 탁본과 사진 등 제대로 된 자료집이 출간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학계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Ⅲ. 판독의 기초자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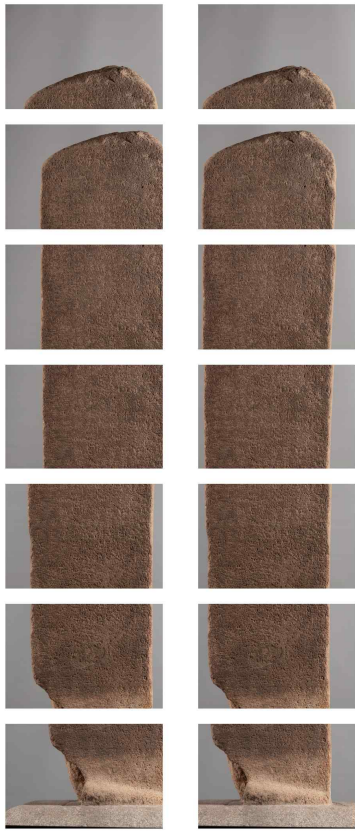
1) 비면의 디지털 사진촬영

카메라 Body는 CANON EOS 5DsR(5000만화소), Lens는 CANON 100mm를 사용하였다. 조명(Strobo)은 모노타입 600W 4개에 각각 Umbrella를 장착하였고, 체계적인 전문 소프트웨어와 비면의 색감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QP card 와 Color Checker Passport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수평계, 레이저 거리계 등을 사용하여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유물의 이미지가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고해상 데이터 확보를 위해 각 비면 분할하여 촬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각 비문(4개 면)의 사이즈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글씨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 면적이 제일 큰 3면을 기준으로 넓이 55cm, 높이 144cm 이다. 3면을 촬영의 기준점으로 하여 카메라의 거리와 가로,세로의 표준사이즈를 정했다.
- 비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표준 사이즈는 가로 60cm, 세로 40cm 만큼의 면 적으로 1cut 씩 촬영
- 비면의 제일 낮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좌우 이동하면서 제일 높은 위치 까 지 총 14cut 촬영
- 비면의 사진데이터 용량(초고해상 스티치 촬영부분), 1개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총 14cut 필요.(TIFF파일 기준 사진데이터 용량:13.8GB)
- 모든 cut들은 주변의 다른 cut들과 30% 이상의 부분을 중첩되게 촬영
- 실제 비면과 동일한 면적의 초고해상도 결과물 확보, 실제 비면과 동일한 크기로 프린트가 가능하며 비면의 디테일을 완벽 재현하여 이번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글씨 판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 왜곡현상을 줄이기 위해 렌즈는 100mm(f2.8)를 사용하였으며 조리개 값은 해상력을 살리면서 적절한 피사계심도를 유지하기 위해 F9.5로 하였다.



좌우2,세로7 = 14cut



초고해상 스티치 사진

2) 탁본 및 디지털 사진촬영

① 현장 탁본 및 포토샵 처리



비면 부착 탁본



포토샵 반전



포토샵 흑백모드

② 탁본 정밀촬영

- 각 비면 분할 사진촬영 과정(고해상 데이터 확보)
- 카메라 Body는 CANON EOS 5D MARK 4, Lens는 CANON 100mm를 사용 하였다. 조명(Strobo)은 모노타입 600W 2개씩을 좌,우에 설치후 Umbrella를 장착하였고,체계적인 전문 소프트웨어와 비면의 색감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QP card 와 Color Checker Passport를 사용하였다.
- 탁본의 제일 높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이동하면서 총 6cut 촬영
- 모든 cut들은 주변의 다른 cut들과 30% 이상의 부분을 중첩되게 촬영
- 비면의 사진데이터 용량(초고해상 스티치 촬영부분)
- 1개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총 6cut 필요.(TIFF파일 기준 사진데이터 용량:1.3GB)



원탁본 3면 초고해상 스티치 과정컷(6 cut)

③ 역대 탁본 비교



1979년 탁본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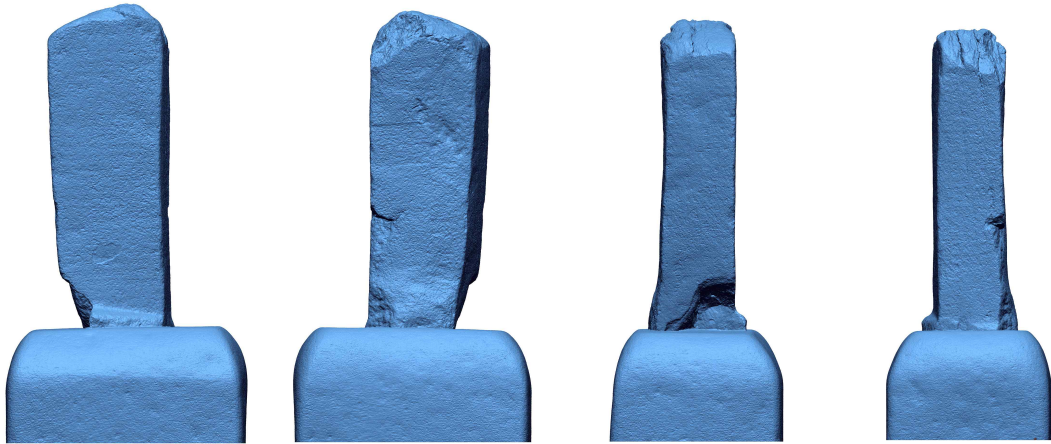
2000년 탁본
(고구려연구회 소장)

2019년 탁본(배접)
(문화재청 소장)

2) 3D 스캐닝

3D 스캐닝이란 표면에 투사한 광원의 간섭이나 반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군(pointclouds) 형태의 3D 형상정보 또는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물의 형상을 측정하고, 측정데이터를 구조화된 점집합으로 변환하고, 점집합으로부터 3D 형상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상 모델링 과정을 거쳐 동일 형상의 실물이나 컴퓨터상의 디지털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형상 역공학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3D 스캐닝 기술은 정밀수치자료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디지털복원, 건전성 평가, 3D 프린팅 적용, 콘텐츠 제작 등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비문의 판독을 위해 충주고구려비의 3D 스캐닝과 명문의 가시화 렌더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식 고정밀 스캐너와 핸드헬드형 정밀 스캐너로 비석 및 명문의 3D 수치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획득한 3D 스캔 데이터는 후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 3D 모델로 완성하였다. 또한 완성된 3D 스캐닝 결과를 이용하여 컴퓨터 그래픽기법 중 하나인 렌더링을 적용하여 명문 가시화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판독된 명문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렌더링 기반의 노말맵, 탁본맵, 표면질감향상맵 등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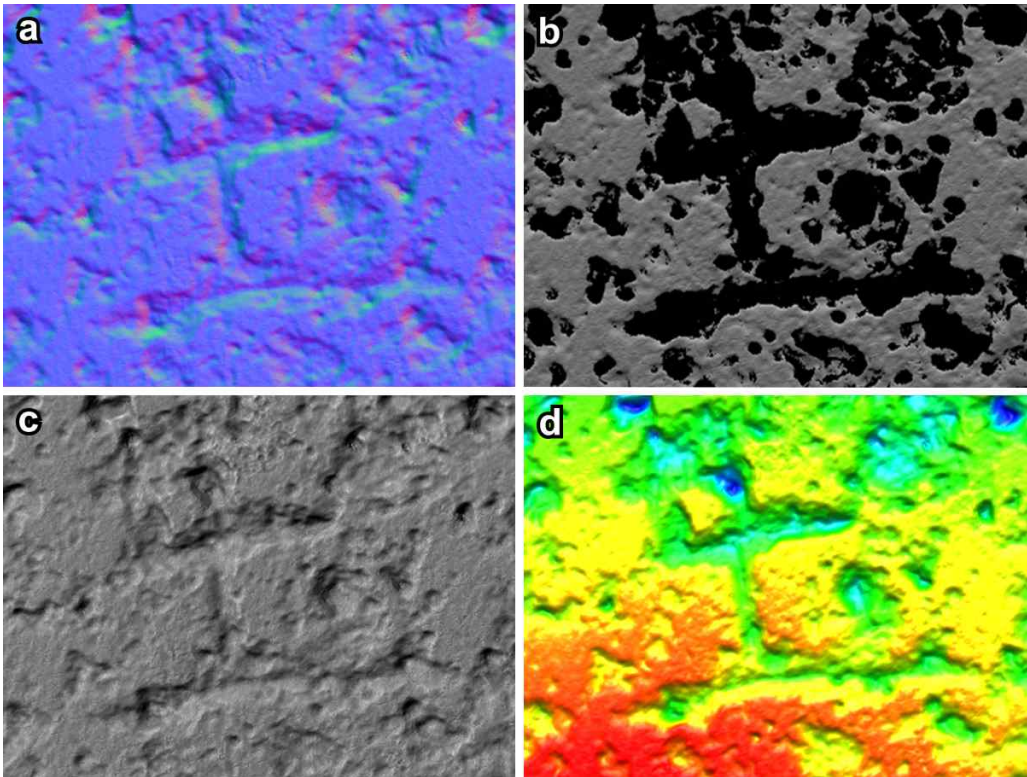
전면

후면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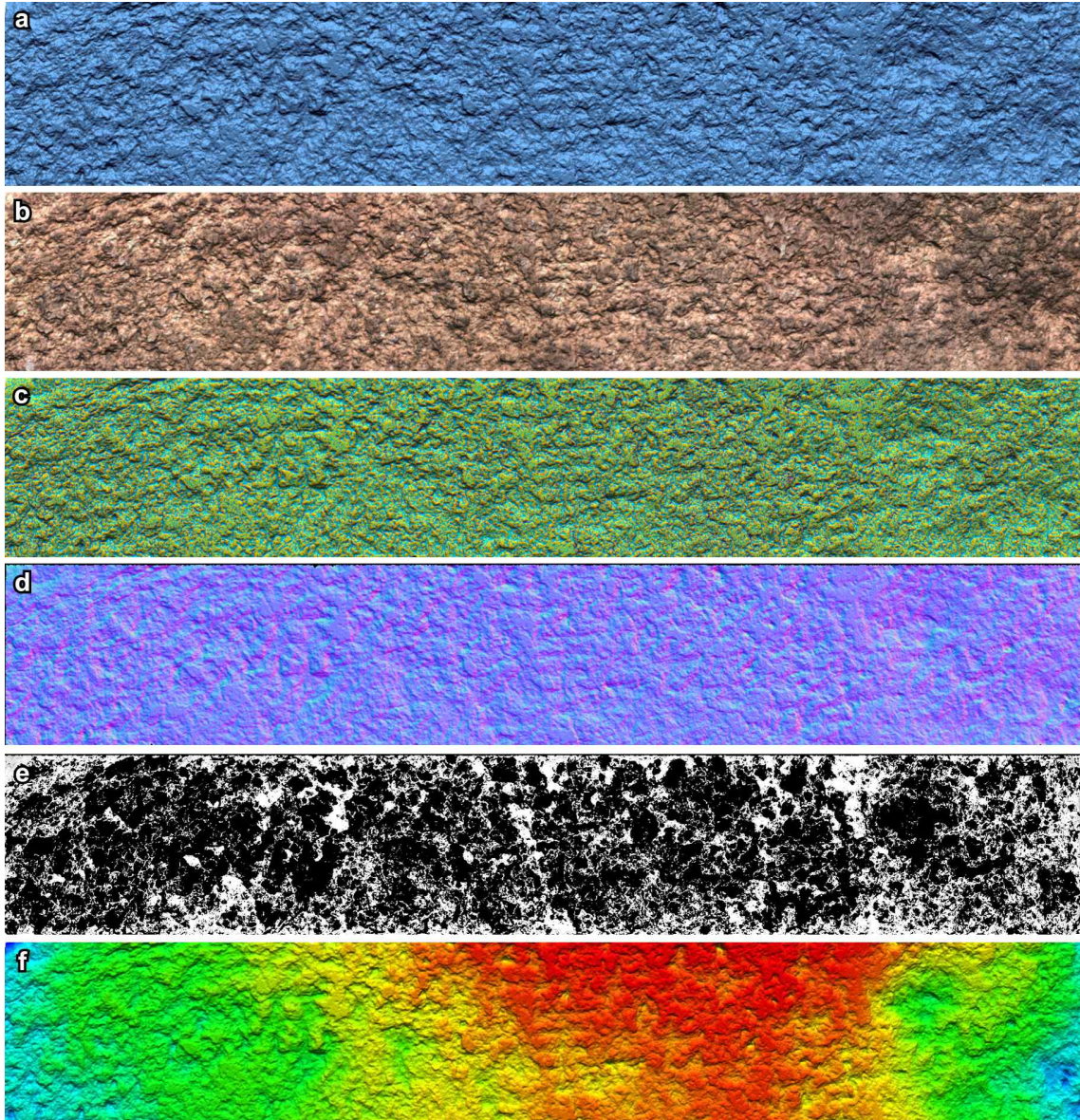
우측면

충주고구려비의 3D 폴리곤 메쉬 모델



a) 노말맵 렌더링 결과. (b) AO맵 렌더링 결과. (c) 표면질감향상맵 심도맵 결과. (d) 심도맵 렌더링 결과

가시화 렌더링 결과(전면 6행 23자 :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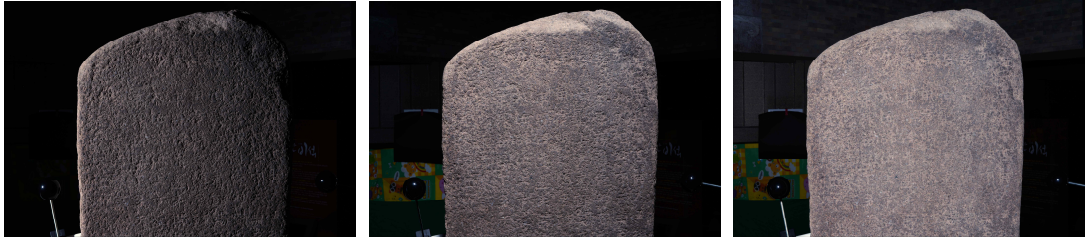


(a) 폴리곤메쉬 모델. (b) RGB 텍스처매핑 결과. (c) 곡률맵. (d) 노말맵. (e) AO맵. (f) 심도맵

전면 제액 부분 가시화 렌더링 결과

3) RTI 촬영

RIT(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는 반사율 변환 이미지 촬영으로 2001년에 처음 개발된 이미지 기반 기록 방식이다. 금석문의 판독 방법으로도 활용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에 조명을 비추어 촬영하는 기법으로 한 각도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디지털 사진을 합성 가공한 다음, 이 자료를 'RTI 뷰어'라는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가상의 빛을 이용하거나 명문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는 등의 조작하여 관찰할 수 있다.



다양한 조명 위치에 의한 RTI 촬영(전면 상부)

금석문 탁본은 판독에 여전히 유용하지만 비의 표면 상태에 따라 명문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은 필획과 훼손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비면에 RTI 촬영을 할 경우 명문의 윤곽을 더 또렷하게 보정하여 탁본 자료에서 확인이 어려운 명문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주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 명문에 대해 RTI 촬영을 실시하여 새롭게 글자를 판독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³⁾

IV. 비문의 판독 및 고찰

1) 題額

충주고구려비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나름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면 상단에 과연 제액이 존재 하는가 문제이다. 최초 조사 시 연구자들 간에도 설왕설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은 좀 장황하기는 하지만 당시 발표문과 학술좌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 충주고구려비가 발견된 이후 비문에 대한 판독과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참가하고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던 이병도 교수의 언급은 흥미와 함께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이 비가 4면비라고 한다면 본래의 전면, 다시 말해서 行文의 序頭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가 문제인데, 아무리 보아도 현재의 (우리가보는) 전면이 원래의 전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첫줄(제1행)에 「高麗大王」云云的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나는 碑額上에 분명히 「建興四」三字의 횡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필시 「高麗建興四年」의 횡서인데, 「高麗」2자와 「年」자가 마멸된 것이라고 나는 본다. 建興은 당시 고구려의 연호로서, 제1행 첫머리의 「五月中」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建興4年 5월중」이라고 읽을 수 있다. 좌측면 額上에도 이러한 횡서의 유무를 검색하여 보았으나, 전혀 자형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高麗大王」운문과 額上의 建興연호를 발견한 후로는 이면이 본래의 전면인 것을 나는 더욱 확신한다.”⁴⁾

3) 신소연, 김영민, 「RTI 촬영을 통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명문 검토」, 『미술자료』 84, 국립중앙박물관, 2013.

4)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제13집, 22쪽.

발표 이후 학술좌담회에서도 자신의 논지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첫 꼭대기가 문제인데, 첫 꼭대기에 액전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일전에 내가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建興 두 글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야, 아 눈이 번쩍 피어가지고 전등불을 켜고 옆에 있는 탁본과 사진을 보니까, 그 글자가 나온다 말이에요. 興字가 예서로 옆으로 조금 비뚤어졌습니다. 대개 보면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는데 자꾸 의심을 해도 아니되고 또 의심한 곳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도 안된다고 보아요. 좌우간 建興 두 글자는 年號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日帝時代에 中原, 즉 老隱面에서 발견된 小形金銅佛像光背에 「建興五年歲在丙辰」이라고 하였는데, 이 年號가 黃壽永교수는 百濟의 것이 아니라 高句麗의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여기에 더욱 自信을 굳히는 동시에 建興앞에는 高麗 두 글자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마멸된 것 같고, 또 建興四(四字까지는 어지간한데) 다음에는 年字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高麗建興四」이라고 풀고 本文 첫줄의 五月을 거기에 直結시키면 아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⁵⁾

즉 전면 상단부에 횡서로 된 ‘高麗建興四年’이라는 제액이 존재하는데 확실히 읽을 수 있는 것은 ‘建興四’라는 세 글자이고 앞부분 ‘高麗’와 마지막 글자인 ‘年’자는 마멸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이호영 교수는 자신이 관찰한 바를 근거로 반박하였다.

“斗溪박사님께서 高麗 建興四年이라고 읽으신 文章에는 흥미가 있습니다. 제가 더듬어 읽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建興은 읽을 수 없지만 적어도 四年이라고 하는 글자는 상당히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도 四字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탁본을 보았을 때에 四字 보다는 七字가 훨씬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의견을 修正했습니다. 왜냐하면 年字를 확실히 年字로 본다면 그 세 개글자는 本文의 글자보다는 거칠고 가능케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廣開土大王 長壽王 文咨王을 연결시켜서 내용을 檢討한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建興四年이라고 읽으신 斗溪박사님 그 밑에 두 字가 더 있습니다. 그 두 字가 더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別陽(陽)字하고 언덕 원(原)字 陽原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때에 陽原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原字가 들어가는 王이 그 이후에 세분이 安原王 陽原王 平原王이 있는데 이 때에 新羅의 경우는 眞興王初期가 되고 陽原王初期에는 언간히 맞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문베성이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적어도 原字인 것같이 느껴집니다.

이 때에 陽原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碑의 建立年代는 여러 선생님께서 추정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新羅와 高句麗 사이가 가장 惡化되었을 때에 어떻게 忠州에 이 碑가 建立될 수 있었나.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없는 또는 三國史記를 통해 본 우리의 인식을 떠났다는 점에서 제 말이 좀 語不成說이다. 이렇게 저 자신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팔순의 노대가와 소장학자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목도되는 듯하다. 결국 조사를 주도했던 정영호 교수가 나서서 수습하고 있다.

5)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中原高句麗碑 學術座談會議錄」, 『史學志』 제13집, 114쪽.

“제가 그동안 일곱차례 충주를 다녀왔습니다마는 5次調査를 떠나기 바로 전날 斗溪 선생님께서 오라고 해서 宅에 가 뵈었더니 拓本을 내놓으시면서 이것을 보라고 그래서 이것이 建興四하고 年字가 붙을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탁본을 펴놓고 보니, 정말 建字 興字 四字인 것 같아요. 그러면 建興四年일 것이다. 建興四年으로 보 이더군요. 그리고 現場에 가서, 새벽 4時 5時면 일어 나서 창고정리하듯 들어가서 후라시로 딱 비추어보면 그것이 그럴듯 하면서도 그렇지도 안구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비추어가면서 보면 아침에 보았던 글자가 또 달라져요. 光線에 따라서…… 하루에 두字 읽어내고 석字 읽어내는 것이 어떻게 힘이 드는지…… 그래서 지금 이호영선생이 아주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 이호영선생이 現地에 같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 또 그렇게도 보여요.

그러서 이 문제는 솔직한 말씀이 放學 동안에 어떻게 機會가 돼서 내려가서 적어도 두 서너차례 더 내려가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끼를 줌손가락 가지고 좀 베껴보고 그 래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 이상 더 判讀이 안되겠다 할 때까지 判讀을 해서 그 이상 안되면 이 일은 國家에서 어떻게…… 여기 金正基博士께서 와 있지만…… 光線을 비추어 어떻게 하든가, 뽀을 떠서 하든가 해서 判讀부터 해야 解釋이 내려지지 判讀이 정확히 되지 않는 데에서 여러가지 얘기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던 이병도 교수가 비의 판독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힌다.

“사실 判讀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의심이 난다고 해서 자꾸 의심하면 안되니까, 의심할 때에 의심안하는 것도 안되고 의심 안할 때에 의심하는 것도 안되니까, 中道를 지켜야 되 겠습니다. 즉 의심할 곳에 의심하고 의심아니할 곳에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하도 寤寐不忘 끝에 꿈에 建興年號가 나타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학술회에서는 이들 세 사람 이외에는 더 이상 제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병도 교수의 現夢 운운한 강하고도 단정적인 발언에도 워낙 비면의 훼손이 심한지라 전체적으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호영 교수의 주장은 크게 어필되 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논고를 통해 정리되어 『史學志』 제13집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필자가 파악한 내용을 추가로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확보한 모든 자료의 기술적 처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초보적인 판독 내용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충주고구려비 전면 상단 우측 끝부분은 비면이 약간 낮아지면서 우측면으로 넘어가는 형태이다. 비문의 본문 위쪽으로 한 줄 정도 공백을 두고 가로로 글자들이 흔적이 나타난다.

첫 번째 글자는 본문 제2행 ‘上’자의 위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글자의 중심에서 비의 좌측 끝 부분까지는 9cm, 위 끝 부분까지는 9.5cm 지점이다. 글자의 높이는 약 3cm이고 너비는 약 4cm이다. 글자 상단부분이 넓고 깊게 패여 있고 그 좌측에도 이 보다는 약간 좁고 낮게 패인 흔적들이 나타난다. 탁본에서 글자의 상부는 패인 흔적으로 인해 먹물이 묻지 않아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자획의 판별이 쉽지 않지만 하부에서 ‘水’자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水’자 우측에는 점획이 분명하고 상부에도 패인 부분을 가로지르는 획이 보이고 있다. RTI 촬영 사진과 배접탁본 및 배접하지 않은 탁본을 비롯하여 3D 스캐닝 ao 처리 사진

등을 통해 전체적인 글자의 형태는 ‘永’자로 확인된다. 광개토태왕비나 천추총에서 발견된 ‘千秋萬歲永固’명 전돌의 ‘永’자와 비슷한 형태이다.

‘永’자 좌측에도 다소 복잡한 형태의 필획들이 보인다. 가로획과 세로획이 엇갈려 있어 자형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원래의 필획이 아닌 것들과 혼재된 듯한데, 아마도 후대에 비면에 인위적으로 추각한 것들일 수 있다. 사실 1500년 이상의 세월을 겪은 비석은 자연적 풍화이외에도 인위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가 멸망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흔적 지우기를 시도했을 수도 있고 지상에 노출된 상태였다면 원래의 비문과는 무관한 낙서 행위도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비면에 새김 흔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문으로 볼 수 없는 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글자를 이병도 교수는 첫 번째 글자와 함께 ‘建興’으로 읽은 듯하고 이호영 교수는 ‘熙’자로 보았다. 하지만 상부에 ‘白’자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고 그 양옆으로 삼각형에 가깝거나 혹은 역삼각형 형태의 필획들도 나타난다. 하단부에는 가로획과 세로획들이 다수 엉켜있지만 ‘木’자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부와 하부의 형태를 결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樂’자에 가깝다. 다만 ‘木’자 하부에 좌상에서 좌하로 또는 위아래로 이어지는 획처럼 보이는 것들은 원래의 글자인 ‘樂’자 위에 덧 새겨진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광개토태왕비의 ‘樂’자 형태와 유산 결구로 보인다.

세 번째 글자는 ‘七’자이다. 이병도 교수는 ‘四’자로 보았고 이호영 교수는 ‘七’자로 보았다. 가로획은 우측으로 약간 올라가는 형태이고 획의 끝 부분에서 미세한 파책의 흔적이 나타난다.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가 주최한 판독회에서 제2획의 가로획 부분을 짧게 치켜 올렸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훼손된 흔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제1획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구는 고구려 광개토태왕비나 덕흥리고분 목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글자는 ‘年’자이다. 이병도 교수는 마멸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호영 교수는 ‘年’자로 읽었다. 이 글자의 좌측 부분은 물갈이 흔적이 잘 남아 있어 필획의 구별이 비교적 잘되며 2000년 고구려연구회 판독회에서 제액의 글자 중에서 유일하게 확인하였던 글자이다. 첫 번째 획은 세로가 짧은 ‘ㄴ’ 형태이고 그 아래로 3개의 가로획이 있다. 그리고 이들 필획을 중간에서 관통하는 세로획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자형 결구이다.

다섯 번째 글자와 여섯 번째 글자는 ‘歲在’이다. 이 글자들을 이호영은 학술좌담회에서 ‘陽原’자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논문에서는 ‘歲辛’자로 고쳐 읽었다. ‘歲’자 부분은 상부의 ‘山’자 형태는 비교적 명확하고 그 아래쪽에 비스듬한 세로획들과 이 세로획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획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개토태왕비나 천추총 출토 ‘千秋萬歲永固’명 전돌의 자형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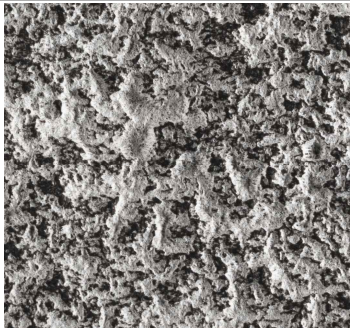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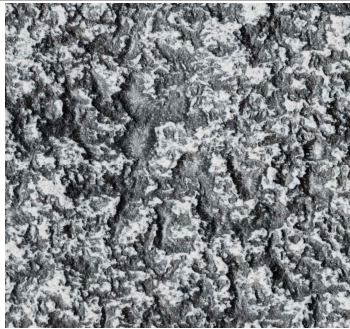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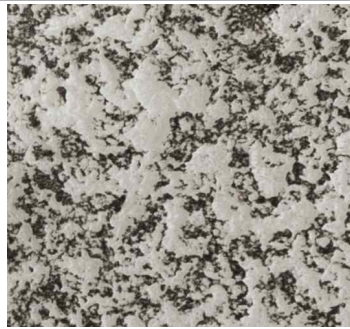
여섯 번째 글자는 ‘在’자이다. 이호영 교수는 처음에는 이 글자를 ‘原’자로 보았으나 후에 ‘辛’자로 읽었다. 아마도 상부에 있는 획을 점획으로 보고 하단 마지막 가로획 아래쪽으로 빠져 나간 흔적을 실획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3D 자료를 보면 아래쪽 빠져나간 흔적은 뒤집힌 부채꼴 형태로 떨어져 나간 훼손 흔적이 분명하다.

앞에서 판독된 여섯 글자는 ‘永樂七年歲在’로 읽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永樂’은 광개토태왕의 연호이고 그 ‘七年’은 곧 397년이며 이 해의 간지는 ‘丁酉’이다. 따라서 판독이 정확하다면 당연히 그 다음 일곱 번째 글자는 ‘丁’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호영 교수도 추정 한 바 있지만 ‘酉’로 보이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자는 다른 글자들에 비해 다소 작고 刻字 수법도 앞의 다른 글자들에 비해 얇게 새겨졌다.

그렇다면 ‘丁’자는 ‘在’자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 두 글자 사이의 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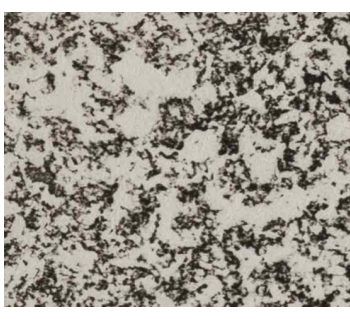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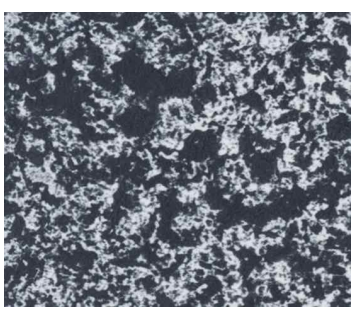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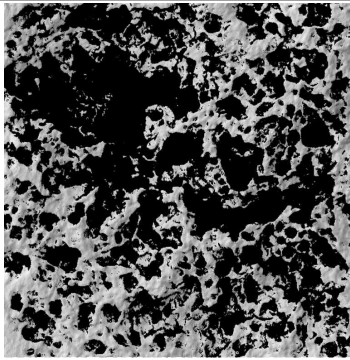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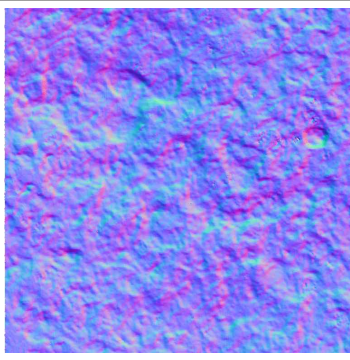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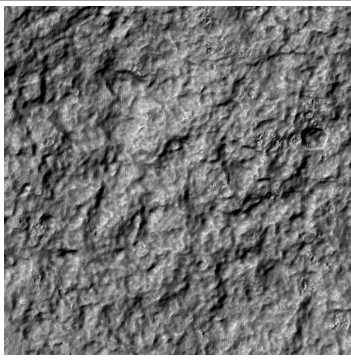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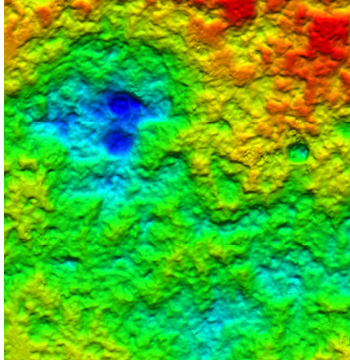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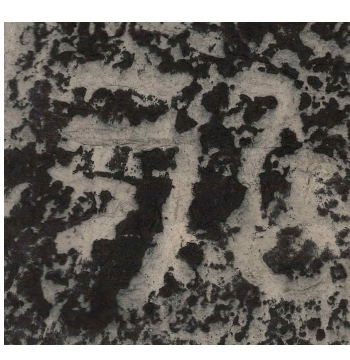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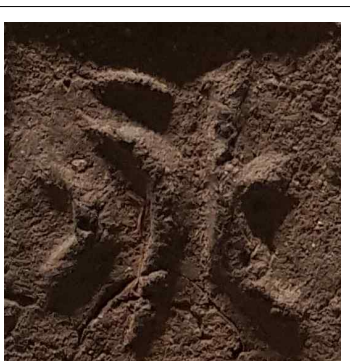


서 찾아보았다. 그런데 필획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기 어려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자획으로서 볼 수 있는 흔적이 없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던 차, '酉'자의 상단에서 '丁'자로서 유의미한 세로획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세로획은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2/3 지점에서 좌측으로 꺾이고 다시 끝 부분에서 좌상향으로 치켜 올린 전형적인 '丁'자의 세로획과 같다. 다만 상부의 가로획이 비석의 끝 부분을 따라 비스듬하게 형성된 석결과 맞닿아 실획과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즉 '丁酉' 간지는 횡서 방식이 아닌 종서로 새겼던 것이다. 이렇게 종서에서 횡서로 또는 횡서에서 종서로 서사 방식을 혼합하는 경우는 고대의 간독이나 서간문 등에서는 보이지만 금석문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이다.


이상 제액 부분에서 판독한 글자는 '永樂七年歲在丁酉' 여덟자이다. 고구려에서 이러한 연호와 간지를 기재하는 방식은 광개토태왕비의 '永樂五年歲在乙未'를 비롯하여 '建興五年歲在丙辰'명 금동 광배⁶⁾ '延嘉七年歲在己未'명 금동여래입상 광배⁷⁾ 등에도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맥상으로도 본문의 '五月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판독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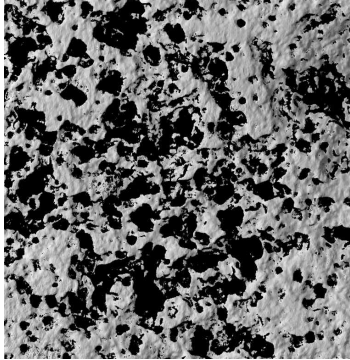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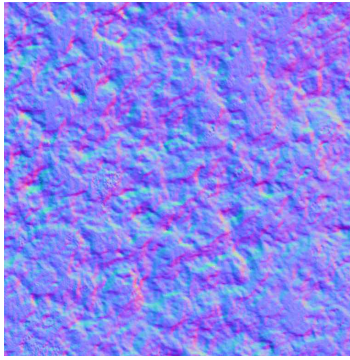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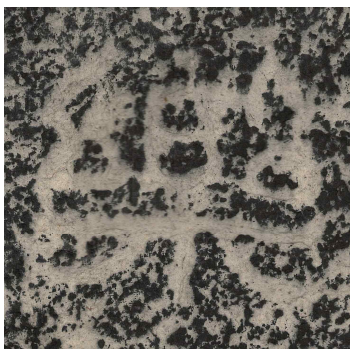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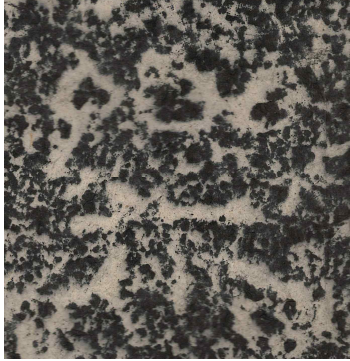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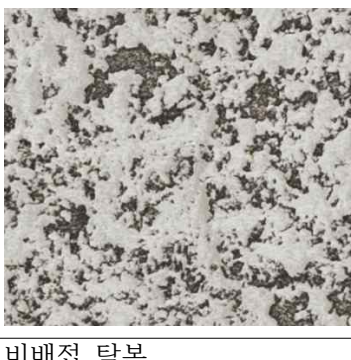
▶ 題額 0-1 : 永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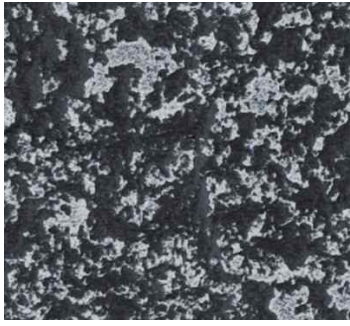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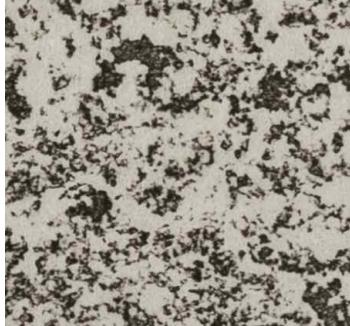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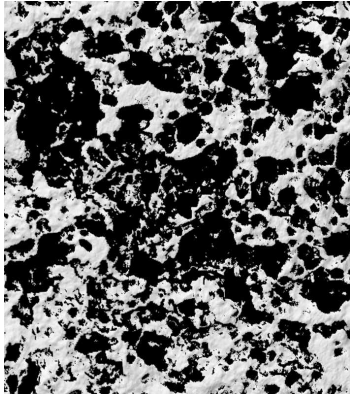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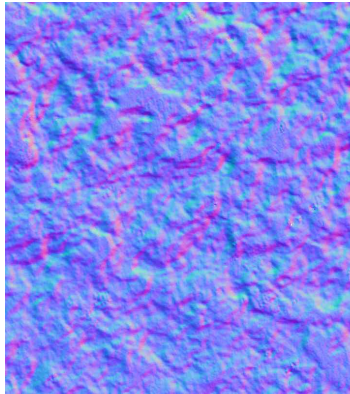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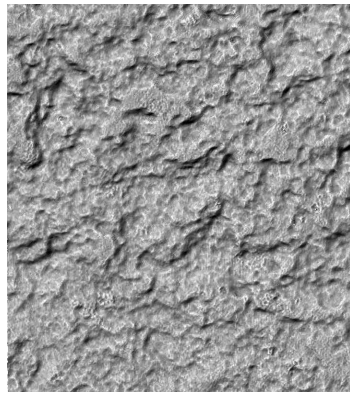





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앞의 책, 132~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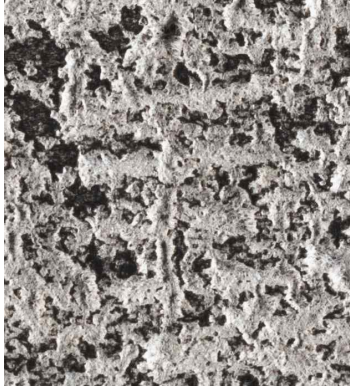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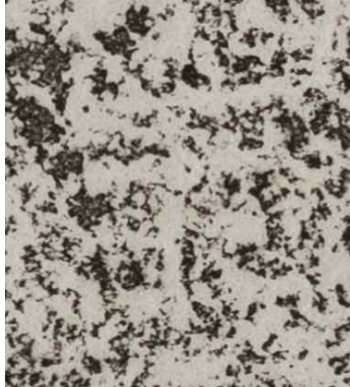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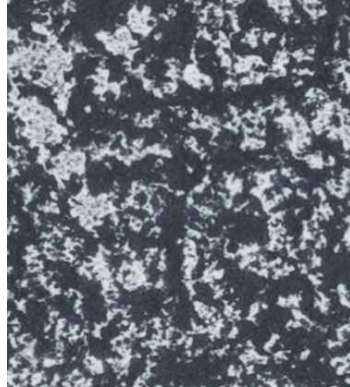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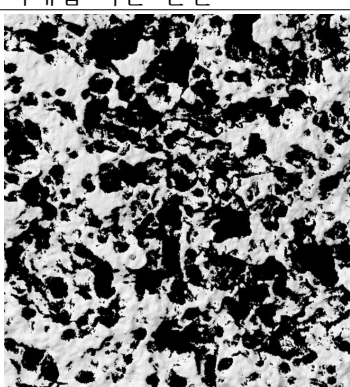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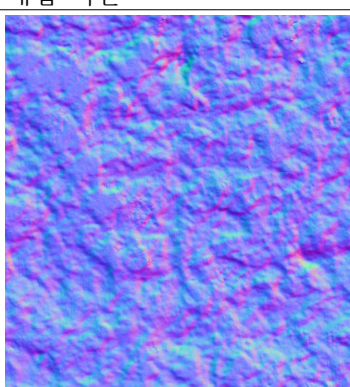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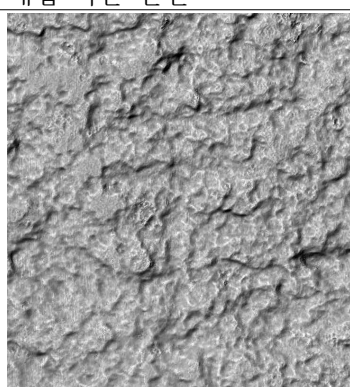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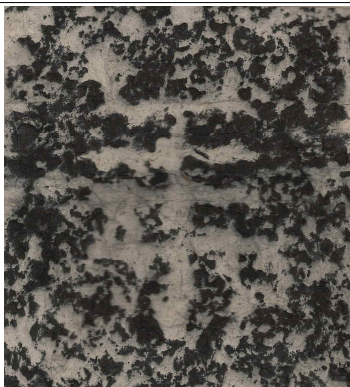
7) 黃壽永, 1963, 「高句麗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 『美術資料』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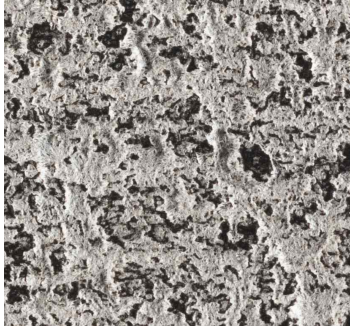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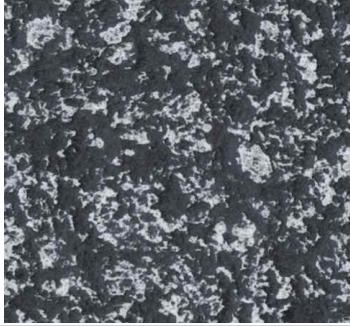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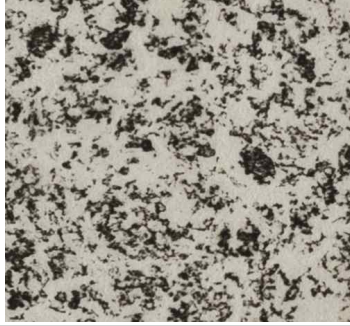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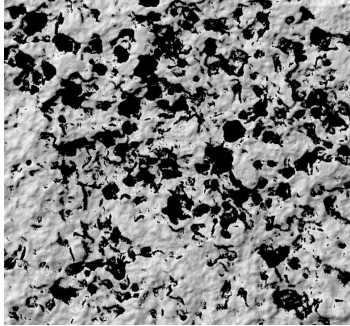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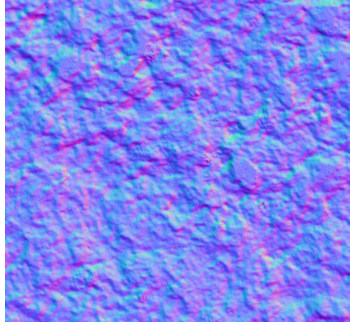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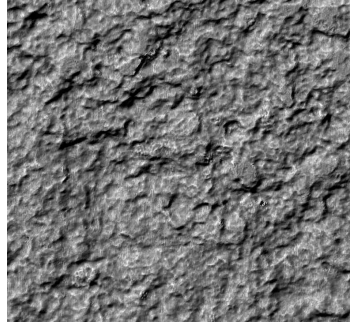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no	3D rs
		
3D de	광비혜1-5-7 '永'	광비혜1-7-1 '永'
		
천추총 '永'	다양한 각도로 빛을 준 RTI 사진(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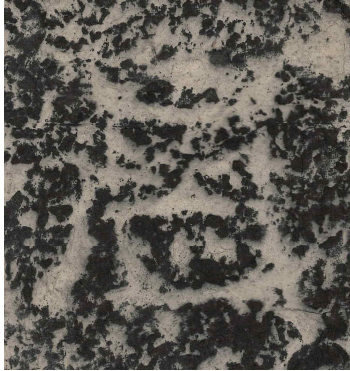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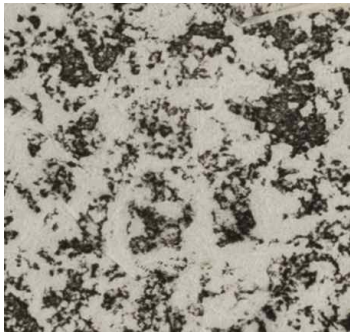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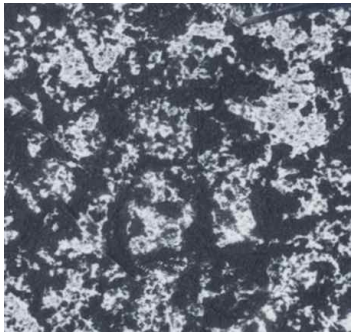
		
다양한 각도로 빛을 준 RTI 사진(비면)		
▶ 題額 0-2 : 樂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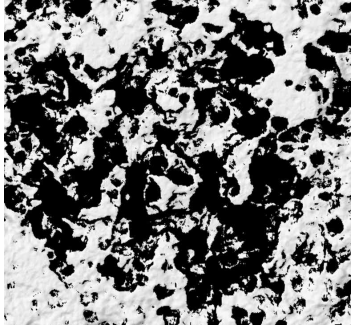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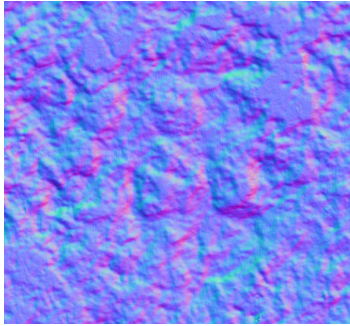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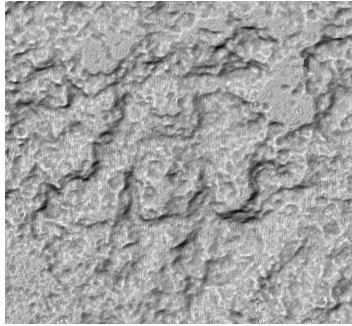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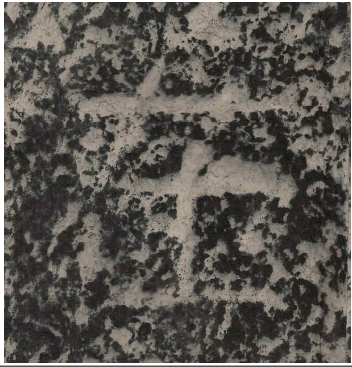



		
3D ao	3D no	3D rs
		
광비혜-1-5-8	광비혜-1-7-2	
▶ 題額 0-3 : 七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탄소 반전	배접 탄소	배접 탄소 반전
		
3D ao	3D no	3D rs
		
광비 3-4-22	덕흥리고분 목서 13郡說明文	
▶ 題額 0-4 : 年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no	3D rs
		
광비혜1-7-4-年		

▶ 題額 0-5 : 歲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no	3D rs

		
광비혜 1-5-5 '歲'	천추총 '歲' 국립중앙박물관	천추총 '歲'
▶ 題額 0-6 : 在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no	3D rs
		
광비헤1-7-6-在		
▶ 題額 0-7~8 : 丁酉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디지털 사진 반전	비면 RTI 촬영

		
비면 RTI 촬영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de
		 광비수-3-4-24 丁  광비수-1-6-19 酉
3D no	3D rs	

2) 干支

충주고구려비의 건립 연대는 전면 제7행 15자에서 22자까지의 ‘十二月廿三(五, 二)甲寅’이라는 날짜와 좌측면에서 ‘辛酉年’이라는 연간지를 근거로 추정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판독에 대해서는 비의 발견 당시 조사 및 연구에 참여하였던 학자들 간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배 교수는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中原碑에서 年代를 추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은 碑文에 나오는 「12月 23(?)日 甲寅」이라는 句節이다. 이 以外에도 碑文에서 辛酉年을 찾아 參考하고자 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데 12月 23日 甲寅에도 問題가 있다. 寅字는 分明하지만 甲字는 一部가 떨어져 나가 보이지 않으나 이를 甲寅으로 보는 데는 學者들의 意見이 一致되고 있다. 그러나 廿三이란

글자는 碑文과 拓本 및 寫眞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卅은 鮮明하나 三字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學者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二」字 같지는 않으며 「五」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만약에 三으로 본다고 하면 「募人三百」에서 나타나는 「三」字와는 다른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三」字로 보면 맨 위의 劃이 아래 두 劃과 너무 사이가 떠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五」로 간주한다고 하면 「五月中」에서 보이는 「五」字와는 또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否定的 立場에 서게되면 三으로 보나 五로 보나 모두 問題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12月 25日 甲寅이나 12月 23日 甲寅으로 나타나는 年代를 찾아내서 이 年代와 碑文의 全體的인 內容이 暗示하는 意味를 견주어 年代를 찾아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고 싶다.……”⁸⁾

그리고 신유년의 판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또 한가지 문제점은 辛酉年을 과연 判讀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필자도 이를 確證해보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辛酉年을 確認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흔히 지적하는 側面 3行의 「酉」字는 다른 字體에 비해서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를 酉로 본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辛」字나 그 아래의 「年」字도 마찬가지이다.……”⁹⁾

이러한 김 교수의 지적은 당시 판독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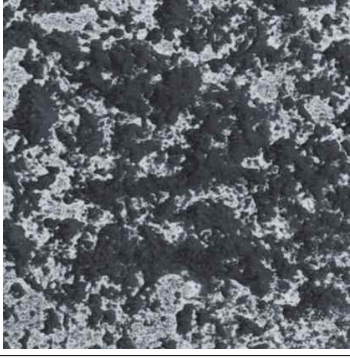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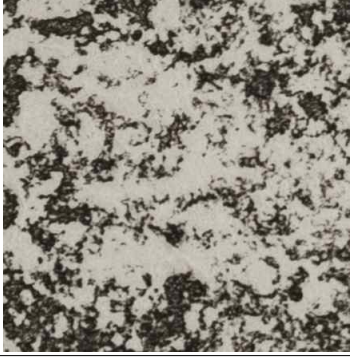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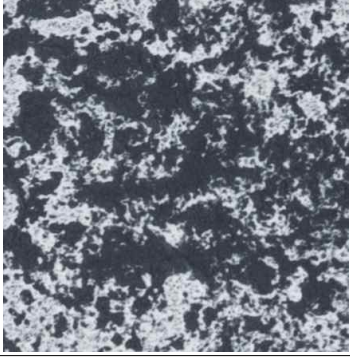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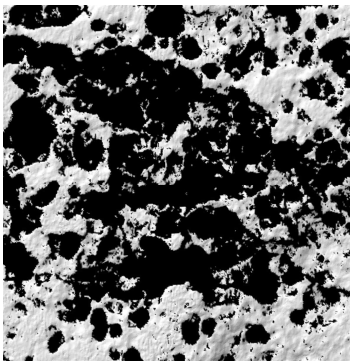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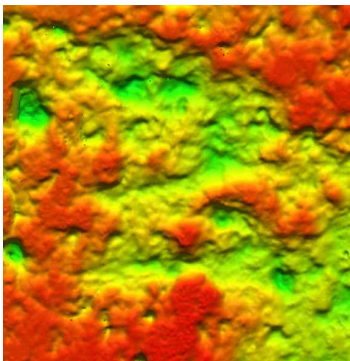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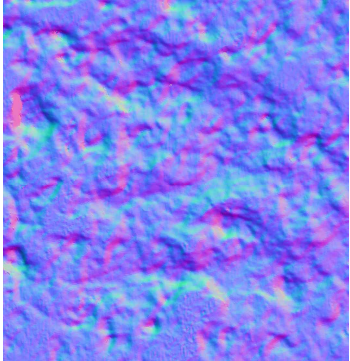
먼저 그동안 ‘三’자, ‘五’자 및 ‘二’자로 판독한 전면 7행 19자를 살펴보자. 이 글자는 좌측 상단부에서 우측 아래로 비스듬하게 훼손된 흔적이 비면의 박락 부위로 이어지고 있다. 탁본을 보면 좌측면이 약간 들린 ‘ㄱ’자 형태이고 좌측 ‘桓’자의 상부 위치에 있어 ‘三’자나 ‘五’자로 판독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비면을 관찰해 보면 좌상에서 우하 방향으로 석결이 나타나고 있고 자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훼손된 흔적으로 보인다. 만약 이 글자가 ‘三’자라면 하단의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두 가로획의 위쪽에 또 하나의 가로획이 있어야 하는데 찾을 수 없다. 비면의 높낮이를 보여주는 3D 심도맵을 보면 비의 표면을 가리키는 빨간색 부분이 ‘三’자의 첫 번째 가로획이 새겨질 부분에 형성되어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五’자로 보기에 앞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五’자 첫 번째 가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제3획의 세로획 부분 또한 3D 심도맵 상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 필획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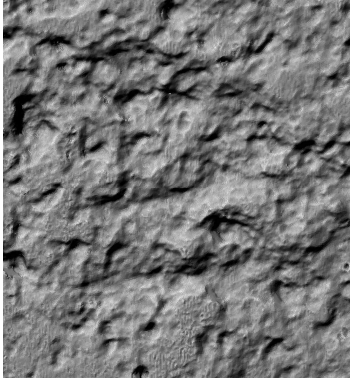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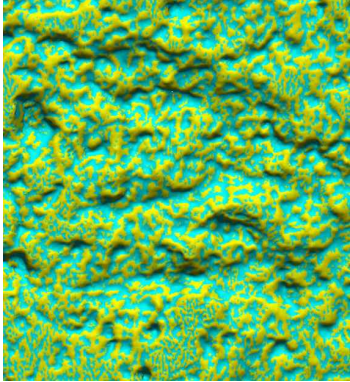




이 글자는 날짜에 해당하므로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필획의 흔적을 보면 나머지 가능한 글자는 ‘二’자와 ‘七’이다. 하지만 ‘二’자로 보기에 앞서 글자가 차지할 전체 공간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인다. 탁본에는 첫 번째 가로획 좌측 부분으로 세로획 하나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특히 RTI 촬영 결과 ‘七’자의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된 날짜는 ‘十二月廿七日’이다.

전면-7-19-七

8) 金貞培,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史學志』 13, 90~91쪽.

9) 위의 논문, 92쪽.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RTI 촬영1	비면 RTI 촬영2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 탁본	배접 탁본 반전
		
3D ao	3D de	3D no

		
3D rs	3D 곡률맵	총제액-0-3 '七'
		
총제액-0-3 '七' 반전	총전면-9-8 '三'	총전면-9-8 '三'

그렇다면 題額에서 확인된 ‘永樂七年歲在丁酉’는 397년 이고 이 해 음력 12월 27일의 일간지는 ‘庚寅’¹⁰⁾이다. 즉 그동안 ‘甲’자로 읽은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는 비문의 판독에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임창순 선생도 “「甲」은 石面이 떨어져나간 부분이어서 그 일부만 보이나 甲에 틀림없을 듯하다”¹¹⁾고 단정하였을 정도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던 글자이다. 비면의 박락과 함께 상부가 떨어져 나갔으나 하부에 세로획 등 일부 필획이 남아있고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田’자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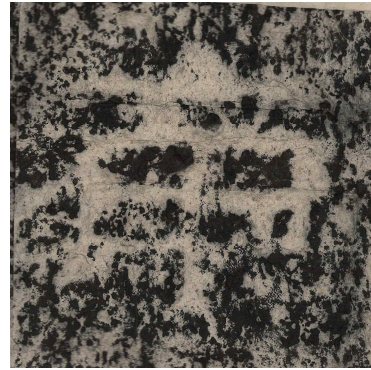
하지만 비면을 자세히 관찰하면 세로획의 좌측 약간 위부분에 좌하로 비스듬하게 내려온 흔적이 남아있고 우측에도 점획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다. 이 잔흔들은 박락 주변의 상대적으로 덜 훼손된 곳에 남아 있어 실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많다.

10) <http://www.lifesc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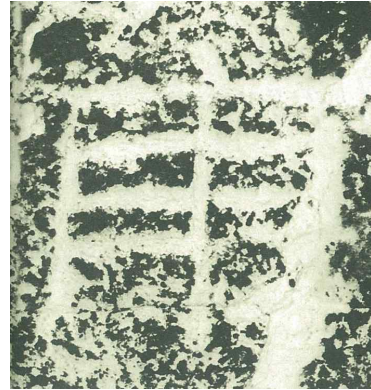
11) 任昌淳, 1979, 「中原高句麗碑 小考」, 『史學志』 13집,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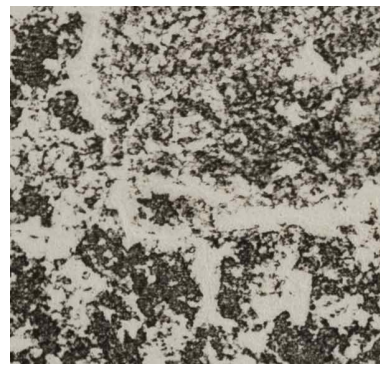
『書道大字典』 '庚'字



광개토태왕비 제2면 8행 11자



광개토태왕비 제3면 6행 5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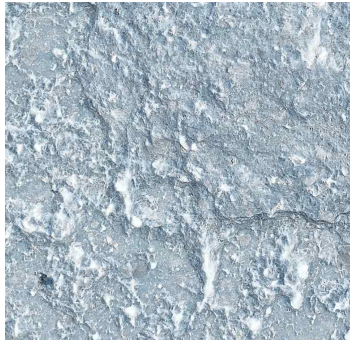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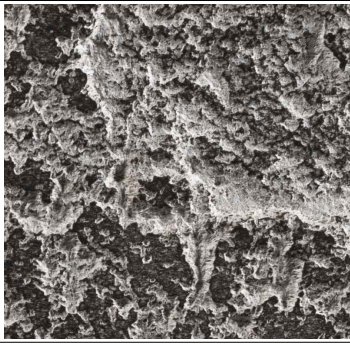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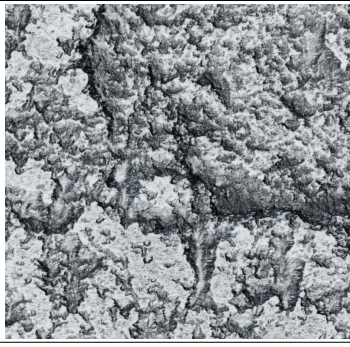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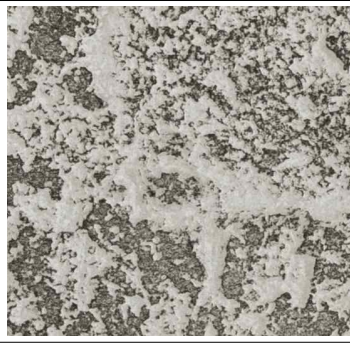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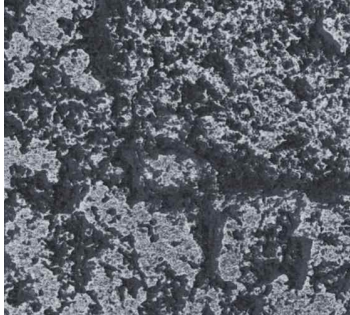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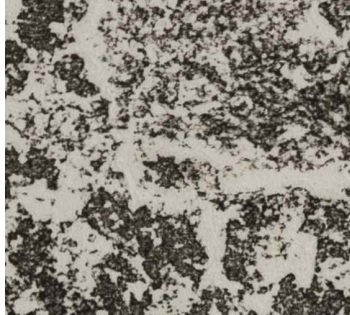

충주고구려비 전면 7행 21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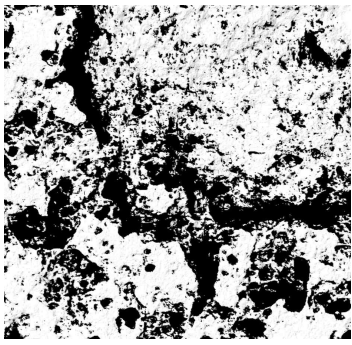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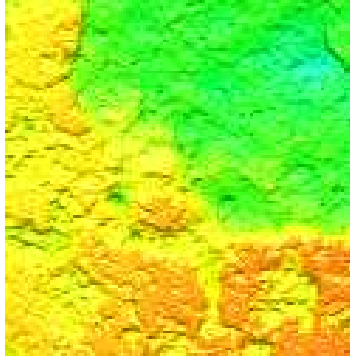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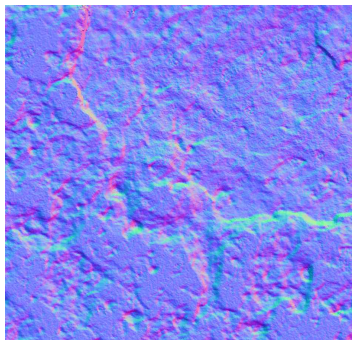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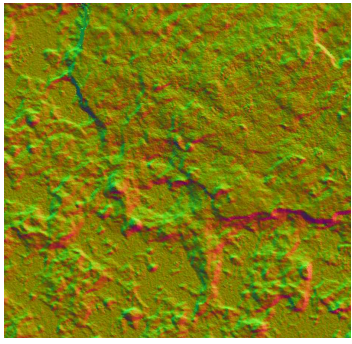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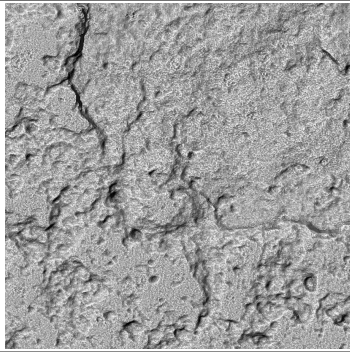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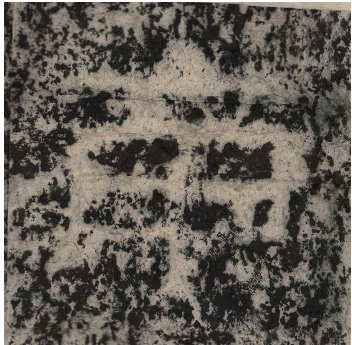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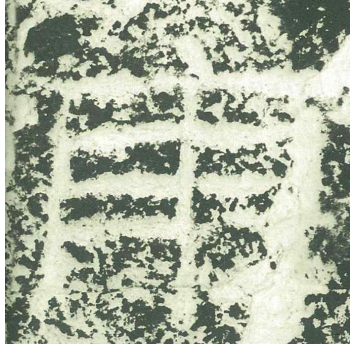
충주고구려비 전면 7행 21자와 한위진남북조 금석문 및 광개토태왕비의 '庚'자 비교

漢魏晉南北朝 시기의 금석문을 보면 '庚'자의 자형 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명조체와는 다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¹²⁾ 좌하향으로 내려 굽는 제7획을 세로의 직선획으로 처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상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甲'자 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의 형태는 광개토태왕비의 '庚'자 처럼 '广' 안쪽의 결구는 '甲'자와 비슷한 결구이고 세로획

12) 伏見冲敬, 1976, 『書道大字典』, 凡中堂, 7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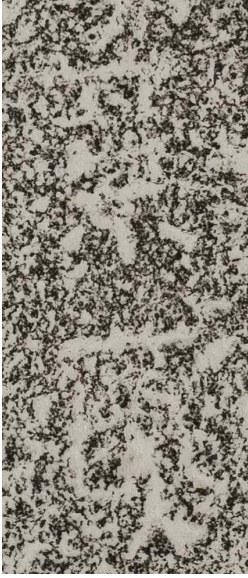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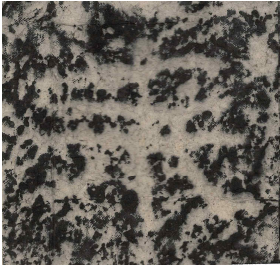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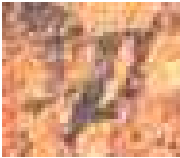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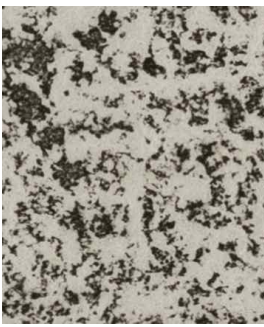
옆에 점을 찍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동안 ‘十二月廿三(또는 五)日甲寅’으로 판독한 것은 ‘十二月廿七日庚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글자는 충주고구려비의 비밀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였음에도 잘못된 추단으로 인해 오독에 오독을 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면-7-21-庚		
		
비면 디지털 사진	비면 디지털 사진 반전	비면 RTI 촬영1
		
비면 RTI 촬영1 반전	비면 RTI 촬영2	비면 RTI 촬영2 반전
		
비면 부착 탁본	비면 부착 탁본 반전	비배접 탁본
		

비배접 탁본 반전	배접탁본	배접탁본 반전
		
3D ao	3D de	3D no
		
3D	3D rs	
		
광비혜-2-8-11 '庚'	광복C-3-6-5 '庚'	

다음으로 좌측면 제3행 7자 부분 이하 '辛酉年'으로 판독한 자형을 살펴보겠다. 이 부분은 김 교수가 언급했듯이 초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판독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辛酉年'으로 볼 수 없다. 약간의 확인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辛酉'로 볼 수 있는 형태는 5행 13~14자이다. 이들 글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자형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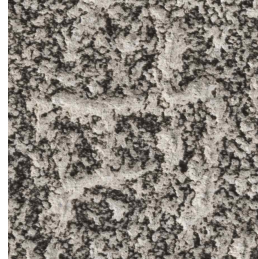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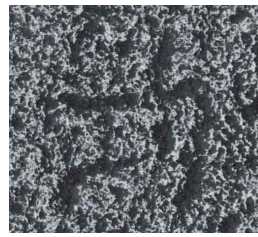




'辛'자로 볼 경우 '立'의 점획 부분이 전체 글자에서 지나치게 좌측에 있고 우측에 세로획이 하나 더 있으며 하부의 '未'의 세로획과 양쪽 점획이 분명치 않다. '年'자는 이체자인 '季'자로 본 것 같은데 상부 '禾'의 세로획이 없고 하부에서도 '干'의 가로획이 하나 밖에 보이지 않는다. 題額의 '年'자와도 다른 형태여서 과연 같은 비석 안에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p>광개토태왕비 1-9-8의 '辛'자</p>
<p>충주고구려비 좌측면 '辛酉年' 판독(1979) 부분</p>	<p>충주고구려비 좌측면 5행 13, 14자 '辛酉'</p>  <p>덕흥리고분 목 서 묘지 '功'</p>	 <p>청제비(병진명) '六十一'</p>  <p>충주고구려비 題額의 '年'자</p>

이 부분을 그저 보이는 데로 읽으면 '功二百六十(四)'이다. 특히 '功'자와 '百'자는 바로 우측의 제2행 10~11자와 흡사하다. 다만 '功'의 경우 우측의 '刀'자와 '力'자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오히려 '刀'자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인다.¹³⁾ '刀'변의 '功'자는 덕흥리벽화고분의 목서 묘지의 제12행 4자에서도 나타나

13) 伏見冲敬, 앞의 책, 227~228쪽.

고 있어 고구려에서도 구별 없이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총좌-2-10-功-탁	총좌-2-10-功-탁반
			
		총좌-2-11-百-탁	총좌-2-11-百-탁반

이러한 글자를 연결하여 서사하는 습字는 동아시아 고대 금석문에서 보편화된 현상이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금석문이나 목간 등에서도 합자의 사례가 다수 보이는데¹⁴⁾ 덕흥리고분벽화 ‘十三郡太守說明文’ 목서의 ‘十三’, ‘二千三百’ 등 숫자의 서사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六’자나 ‘八’자의 경우 그 다음 글자가 ‘十’자로 이어 질 때 양쪽으로 펼친 두 획 안쪽으로 감싸도록 서사하는 특징은 신라 청제비(병진명)나 신라장적 등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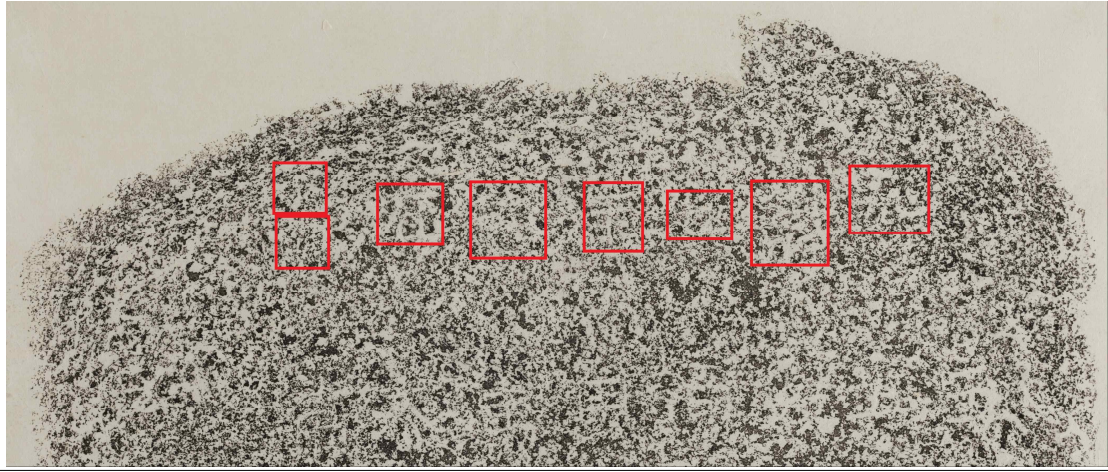
따라서 충주고구려비 발견 이래 ‘辛酉年’이라고 판독한 좌측면 제3행 7자부터 10자 위쪽의 글자는 ‘功二百六十(四)’일 가능성이 크다.

V. 맺음말

이상 충주고구려비의 제액과 비문에 나오는 간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판독문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제액 부분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를 읽었고, 본문에서 ‘十二月廿三(五)日甲寅’으로 판독되던 것을 ‘十二月廿七日庚寅’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좌측면에서 ‘辛酉年’으로 판독하여 연대 추정의 단서로 삼았던 자형은 ‘功二百六十(四)’일 가능성이 크다.

14) 권인한, 2019, 「합자(合字)와 국자(國字)」, 『문자와 고대 한국1-기록과 지배』, 주류성, 223~231쪽 참조.

10	9	8	7	6	5	4	3	2	1	
×	×	丁 酉	在	歲	年	七	樂	永	×	題額
×	×	×	×	×	×	×	×	×	×	
△	德	夷	大	夷	伊/用	向	奴	上	五	①



충주고구려비 제액 판독 결과

만약 이러한 판독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동안 충주고구려비 연구에서 논란이 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문의 시작 면에 대한 논란을 종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액 부분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 연도가 확인되고 본문의 ‘五月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을 1면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비의 건립 연대이다. 충주고구려비의 건립연대에 관해서는 5세기 이후 광개토태왕부터 6세기 문자왕때까지 다양하게 추정하였으나 ‘永樂七年’이라는 연대가 확인된 만큼 비는 397년 혹은 이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좌측면 제5행 13, 14자의 ‘신유’뿐 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간지가 판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비문의 많은 부분이 정확히 판독되지 않아 판독 결과에 따라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